

## ▶ 내신 기출 국어, 비상 박안수-상편 ◀

### 1. 읽기의 가치와 즐거움

- (1) 자화상 (47문제)-----1쪽  
(2) 책 속에 길이 있다 (37문제)-----19쪽

### 2. 마음을 잇는 소통의 창

- (1) 매체를 읽는 눈 (31문제)-----36쪽  
(2) 책임감 있게 글쓰기 (23문제)-----52쪽  
(3) 서로를 존중하는 대화 (42문제)-----63쪽

### 3. 문학으로 그리는 삶

- (1) 첫사랑 (42문제)-----79쪽  
(2) 아홉 켈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49문제)-----94쪽  
(3) 결혼 (54문제)-----125쪽  
(4) 반 통의 물 (37문제)-----158쪽

### 4. 바른 말, 바른 글

- (1) 음운의 변동 (70문제)-----175쪽  
(2) 한글 맞춤법 (65문제)-----198쪽

### 5. 책 속의 지혜, 말 속의 길

- (1) 고릴라를 못 본 이유 (32문제)-----220쪽

◆빠른 전체 정답-----238쪽

◆해설-----241쪽

**교재 버전: 2021.02.01**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 “매체를 읽는 눈” 평가 문항

## 1. 영상 광고 「목념」의 제작 의도와 표현 방법

<b>제작 의도</b>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아갈 것을 권하기 위함.
<b>표현 방법 및 효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상: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모습을 목념하고 있는 모습에 비유하여 표현함.</li> <li>•자막: 자막에 빈칸을 제시하여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함.</li> <li>•유사한 장면의 반복: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장면(남자와 여자가 마주한 상황, 가족끼리 생일을 축하하는 상황, 운동 경기를 응원하는 상황, 결혼식을 하고 있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스마트폰 중독이 미치는 악영향을 깨닫게 함.</li> <li>•대조: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장면과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고 소통하고 있는 장면을 대조하여 보여 줌으로써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했을 때의 좋은 점을 깨닫게 함.</li> <li>•광고 문구: ‘고개를 들면 소중한 사람, 소중한 순간들이 당신 곁에 있습니다.’라는 광고 문구를 내레이션으로 마지막에 제시하여 제작 의도를 강조함.</li> </ul>

## 2. 1인 가구 증가를 다룬 신문 기사(활동 ①의 ㉠과 ㉡ 비교)

	㉠	㉡
<b>공통점</b>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인구 주택 총조사’ 결과에 담긴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음.	
<b>차이점</b>	통계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1인 가구가 증가하게 된 요인은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증가와 대학생의 다른 지역 유학 등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통계청에서 분석한 1인 가구 증가 요인 외에 사회학과 교수의 말을 인용하여 고령화 요인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음.



㉠과 ㉡처럼 동일한 정보를 다루고 있는 기사라도 기자나 신문사의 관점에 따라 기사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사에 담긴 관점이 어떤 표현 방법을 통해 제시되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읽어야 함.

## 3. 매체 자료를 읽을 때 유의할 점

유형	유의할 점
<b>인쇄 매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여 이면의 내용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함.</li> <li>•자신의 생각과 글의 내용을 비교하며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함.</li> </ul>
<b>방송 매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체 속의 모습과 실제 현실과의 관련성을 생각하면서 방송 내용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함.</li> <li>•정보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점검하고, 정보의 가치를 스스로 판단하는 힘을 길러야 함.</li> <li>•지나치게 상업적이거나 편견을 지닌 내용은 없는지 점검해야 함.</li> </ul>
<b>디지털 통신 매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많은 정보 속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분별하고, 정보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함.</li> <li>•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해 정보를 자극적으로 왜곡하거나 과장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야 함.</li> </ul>

## “미디어를 읽는 눈” 온라인 수업

1. 영상 광고 「목념」의 제작 의도와 표현 방법을 파악해 보자.

의도	표현 방법
<p>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아갈 것을 권하기 위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모습을 ‘목념’하고 있는 모습에 비유하여 표현함.</li> <li>• 자막에 빈칸을 제시하여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반복하여 보여주어 스마트폰 중독이 미치는 악영향을 깨닫게 함.</li> <li>• 광고 문구를 내레이션으로 마지막에 제시하여 제작 의도를 강조함</li> </ul>

2. 이 광고의 내용 및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해 보자.

기준	평가 내용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관점에서 내용을 제시하였는가?	스마트폰 사용의 부정적인 면을 과장되게 표현했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못한 면이 있음.
보편타당하고 믿을 만한 정보를 제시하였는가?	스마트폰 중독을 경계해야 한다는 보편타당한 내용을 담고 있음.
광고가 실린 매체에 맞는 적절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였는가?	영상 광고의 특성에 따라 장면과 광고 문구를 효과적으로 배치하였으나, 청각적 이미지는 잘 활용되지 못하였음.
광고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표현 방법을 사용하였는가?	목념하는 모습과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모습의 유사점을 활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음.

3. 다음 내용을 정리해 보자.

	“혼자서도 잘해요” ..... 1인 가구 비중 역대 최고	“혼자 살아요” 10가구 중 2~3곳..... 2인 가구 추월
	‘2015 인구 주택 총조사’의 도표(막대그래프) 자료를 제시함.	없음.
인용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인구 주택 총조사’ 결과.</li> <li>• 통계청 관계자의 의견을 인용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인구 주택 총조사’ 결과.</li> <li>• 사회학과 교수의 의견을 인용함.</li> </ul>
필자의 관점	1인 가구 증가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바라봄	1인 가구 증가의 부정적인 측면에 주목

4. 다음 인쇄 광고의 제작 의도와 표현 방법을 파악하고, 그 적절성을 평가해 보자.



아름다운 선율도 아래층 이웃에게는 때론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층을 이해하고 배려하면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의도	표현 방법
이웃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지니면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제를 표현하려 함.	잘 알려진 명화를 위아래층의 주민을 연상시키듯 배치하여 나에게서는 음악처럼 들리는 소리일지라도 남에게는 듣기에 고통스러운 소음이라는 점을 잘 표현함.



[ 평가 ]  
 인쇄 매체는 그 특성상 시각적 정보가 제일 중요하다. 이 광고는 널리 알려진 명화를 아파트의 위층과 아래층처럼 보이도록 배치함으로써 시각적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였고, 이로 인해 독자들이 직관적으로 광고의 의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인쇄매체의 특성을 잘 살린 광고이다.

5. 다음은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고 작성한 비평문이다. 이 글의 글쓴이가 비판하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자

**누군가의 희생으로 얻은 웃음**

초등학교 시절 나에게서 부끄러운 기억이 하나 있다. 같은 반 친구 중에 목소리가 특이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의 흉내를 내며 놀렸던 것이다. 그때는 단순히 내가 그 친구를 흉내 낼 때 다른 친구들이 재미있어 하는 것이 좋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 아이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을 것 같다.

글쓴이가 비판하고 있는 문제	자신의 생각
온 가족이 함께 보는 희극 프로그램에서 외모를 희화화하여 웃음을 유발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음.	여러 연령대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희극 프로그램에서 외모에 대한 편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다음 광고를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경덕여자고등학교 (대구)**

1. 위 광고에 대한 <보기>의 대화 내용 중 적절한 것끼리 고른 것은?

<보기>

민지 :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는 모습을 '묵념'하는 모습에 비유했어.

수현 : 자막에 빈칸을 제시하여 광고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속도감 있게 전달했어.

윤정 : 광고 문구를 내레이션으로 제시하여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표현했어.

선희 : 스마트폰으로 인해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제시했어.

인성 : 대조적인 상황을 제시하여 독자에게 일상의 소중한함을 깨닫게 했어.

- ① 민지, 수현    ② 수현, 윤정    ③ 선희, 인성  
 ④ 윤정, 선희    ⑤ 민지, 선희

**경덕여자고등학교 (대구)**

2. 위 광고의 적절성 평가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평가 기준으로 적합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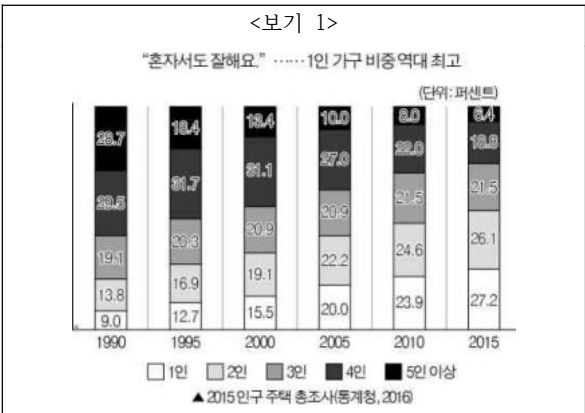
<보기>

ㄱ. 보편타당하고 믿을 만한 정보를 제시하였는가?  
 ㄴ. 육하원칙에 따라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였는가?  
 ㄷ. 광고가 실린 매체에 맞는 적절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였는가?  
 ㄹ. 제작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는가?  
 ㅁ.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였는가?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ㅁ    ⑤ ㄹ, ㅁ

**경덕여자고등학교 (대구)**

3. <보기2>는 <보기1>을 접한 학생의 발표이다. 발표 계획 단계에서 학생이 했을 법한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1인 가구의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인 가구는 가구 유형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15 인구 주택 총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기준 1인 가구의 비율은 27.2퍼센트로 집계됐다. 5년 전 조사에서 1인 가구의 비율은 23.9퍼센트였다. 5년 동안 1인 가구는 99만 가구가 늘어나면서 처음으로 2인 가구의 비율보다 높아졌다.

연령별로는 30대의 1인 가구 비중이 18.3퍼센트로 가장 높았다. 70세 이상의 1인 가구 비중은 18.3퍼센트로 가장 높았다. 70세 이상의 1대 가구 비중은 17.5퍼센트로 30대의 뒤를 이었고, 20대 17퍼센트, 50대 16.9퍼센트, 40대 16.3퍼센트 순이었다. 1인 가구의 비중이 청년층에서만 아니라 고령층에서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의 하봉채 과장은 “경제 활동 인구가 늘어나면 1인 가구는 자연적으로 늘어난다.”라며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진 요인으로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증가, 대학생의

다른 지역 유학 등을 꼽았다.(후략)

(나)

“혼자 살아요.” 10가구 중 2~3곳 …… 2인 가구 추월

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인구 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가구 유형 중에서 1인 가구 형태가 가장 많았다. 1인 가구는 520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7.2퍼센트를 차지했다. 1990년만 해도 9.0퍼센트에 불과했던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 형태는 2인 가구로 26.1퍼센트였다. 가구의 절반 이상이 혼자 혹은 둘이 사는 형태다. (중략)

1인 가구의 확산은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는 나 홀로 문화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삶 자체를 홀로 영위해야 하는 독거는 유행처럼 선택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1인 가구의 증가 원인을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특히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서 1인 가구를 형성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혼자 살아야만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문화가 사라지다 보니 혼자 사는 노인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중략)

아주 대학교 사회학과와 노명우 교수는 “현재 한국의 1인 가구 확산은 미혼 요인보다는 고령화 요인이 더 크다.”라면서 “젊은 연령층만 봤을 때 1인 가구는 선호도에 따른 선택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노인 1인 가구와 여성 1인 가구 증가가 분명해진다.”라고 말했다. (후략)

<보기 2>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회에서 보이는 큰 변화 중의 하나인 ‘1인 가구의 증가 현상’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우선 1인 가구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까요? 1인 가구는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이러한 1인 가구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화면을 손으로 가리키며)화면 속의 도표를 봐주세요.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는 2015년에 처음으로 2인 가구의 비율을 추월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가장 보편적인 가구의 유형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1인 가구가 증가하게 된 것일까요? (화면을 손으로 가리키며) 화면을 봐주세요. 1인 가구 증가에 대해 통계청의 하봉채 과장은 경제 활동 인구가 증가하면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하는 반면에 아주대학교 사회학과와 노명우 교수는 고령화의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합니다. (중략)

1인 가구 시대가 펼쳐지면서 다양한 방면에서 변화된

모습이 우리 사회에 보이고 있습니다. 1인용 생활용기나 소형 가전제품의 수요가 높아지고 소용량 제품이나 조리 식품 등의 간편식 등의 판매량이 증가하는 것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인 가구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어떠신가요? 어렵지 않으셨지요? 1인 가구 현상뿐 만 아니라 달라지는 우리 사회의 변화 모습에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기울였으면 하는 기대를 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 ① (가)에 제시된 막대그래프를 시각 자료로 화면에 제시하여 청중의 이해를 도와야겠어.
- ② (나)에 제시된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 문제의 심각성을 집중적으로 다루어야겠어.
- ③ (가)와 (나)에는 1인 가구의 개념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니 내가 직접 찾아서 알려줘야겠어.
- ④ (가)와 (나)에 인용된 전문가의 의견을 모두 활용하여 1인 가구의 증가 원인을 제시해야겠어.
- ⑤ (가)와 (나)에는 제시되지 않은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사회의 변화된 모습을 발표에 추가해야겠어.

**경덕여자고등학교 (대구)**

**4. <보기>의 인터넷 기사를 접한 학생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맛집 주방에 가 보니? 충격

외식업의 기본은 ‘청결’, 손님이 안 보더라도 원칙 지켜야

성공한 외식 사업가인 ○○○ 씨의 이야기가 소개돼 주목받고 있다. 그가 최근 문을 연 음식점 세 곳이 모두 맛집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전국에서 손님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씨에게 성공 비결을 물었다. 그는 특별한 성공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만들 때의 기본 원칙인 ‘청결’을 365일 철저히 실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후략)

- ① 기사의 내용에 적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군.
- ②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활용하여 있는 사실을 왜곡하여 전달하고 있군.
- ③ 신뢰도가 떨어지는 자료를 근거로 기사의 내용을 작성하여 독자에게 혼란을 주는군.
- ④ 제목만 본 독자는 음식점 주방의 문제점이 기사의 내용으로 제시될 것이라 예상하겠군.
- ⑤ 외식 사업가의 인터뷰 내용을 제시하여 청결하지 못한 음식점 주방의 실태를 알려주는군.

**경덕여자고등학교 (대구)**

5. <보기>를 읽고 난 후, 텔레비전 프로그램 기획자가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초등학교 시절 나에게서는 부끄러운 기억이 하나 있다. 같은 반 친구 중에 목소리가 특이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의 흉내를 내며 놀렸던 것이다. 그때는 단순히 내가 그 친구를 흉내 낼 때 다른 친구들이 재미있어 하는 것이 좋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 아이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을 것 같다.

그런데 며칠 전 텔레비전을 보다가 다시 그 시절의 부끄러운 기억이 떠올랐다. 희극 프로그램 중 옆집에 사는 두 남녀의 상황을 그린 이야기를 보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남자 희극인이 바로 초등학교 시절의 나와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에서 여자 희극인의 뚱뚱한 외모는 희화화된다. 옆집 여자가 자동계단을 밟는 순간 계단이 평평해져 자동같이 되거나, 남자가 옆집 여자의 걸음을 보며 천막인 줄 알았다고 말하는 식이다. 여자 희극인의 외모를 비하하여 웃음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얻은 웃음이 진정한 웃음일까? 누군가의 비극으로 만들어진 희극은 진정한 희극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특히 여러 계층이 시청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사람의 외모를 희화화하는 것은 웃고 넘길 수 없는 일이다. 방송에서 이와 같은 부적절한 내용을 다루지 않도록, 프로그램의 제작자뿐 아니라 시청자도 문제 의식을 지니고 방송 내용을 살펴야 한다. 온 가족이 함께 보는 희극 프로그램이 건강한 웃음을 만들 수 있게 우리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① 텔레비전 희극 프로그램의 모든 내용을 사전에 점검하여 시청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겠군.
- ② 시청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모든 연령대가 시청할 수 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군.
- ③ 가족 구성원 간의 건강한 웃음을 주제로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기획해야겠군.
- ④ 외모를 희화화시키지 않고 웃음을 유발하여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텔레비전 희극 프로그램을 제작해야겠군.
- ⑤ 외모에 대한 편견이 생기지 않도록 특정 계층을 시청자로 살아 외모지상주의를 비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군.

pt005pt (카톡 ID)  
내용 질문, 오류 신고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혼자서도 잘해요”...1인 가구 비중 역대 최고

1인 가구의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인 가구는 가구 유형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15 인구 주택 총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기준 1인 가구의 비율은 27.2퍼센트로 집계됐다. 5년 전 조사에서 1인 가구의 비율은 23.9퍼센트였다. 5년 동안 1인 가구는 99만 가구가 늘어나면서 처음으로 2인 가구의 비율보다 높아졌다.

연령별로는 30대의 1인 가구 비중이 18.3퍼센트로 가장 높았다. 70세 이상의 1인 가구 비중은 17.5퍼센트로 30대의 뒤를 이었고, 20대 17퍼센트, 50대 16.9퍼센트, 40대 16.3퍼센트 순이었다. 1인 가구의 비중이 청년층에서뿐만 아니라 고령층에서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의 하봉채 과장은 “경제 활동 인구가 늘어나면 1인 가구는 자연적으로 늘어난다.”라며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진 요인으로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증가, 대학생의 다른 지역 유학 등을 꼽았다.

- 서울경제신문, 2016년 9월 7일

(나)

“혼자 살아요.” 10가구 중 2~3곳 …… 2인 가구 추월

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인구 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가구 유형 중에서 1인 가구 형태가 가장 많았다. 1인 가구는 520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7.2퍼센트를 차지했다. 1990년만 해도 9.0퍼센트에 불과했던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 형태는 2인 가구로 26.1퍼센트였다. 가구의 절반 이상이 혼자 혹은 둘이 사는 형태다.

2005년만 해도 4인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2010년 조사 때는 2인 가구가 24.6퍼센트로 가장 많았는데, 이번에는 1인 가구가 가장 보편적인 가구 유형이 된 셈이다.

1인 가구의 확산은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는 나홀로 문화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삶 자체를 홀로 영위해야 하는 독거는 유행처럼 선택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1인 가구의 증가 원인을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특히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서 1인 가구를 형성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혼자 살아야만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문화가 사라지다 보니 혼자 사는 노인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아주 대학교 사회학과와 노명우 교수는 “현재 한국의 1인 가구 확산은 미혼 요인보다는 고령화 요인이 더 크다.”라면서 “젊은 연령층만 봤을 때 1인 가구는 선호도에 따른 선택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노인 1인 가구와 여성 1인 가구

증가가 분명해진다.”라고 말했다.

- 국민일보, 2016년 9월 8일

(다) 맛집 주방에 가 보니? 충격

외식업의 기본은 '청결', 손님이 안 보더라도 원칙 지켜야

성공한 외식 사업가인 ○○○ 씨의 이야기가 소개돼 주목받고 있다. 그가 최근 문을 연 음식점 세 곳이 모두 맛집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전국에서 손님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 씨에게 성공 비결을 물었다. 그는 특별한 성공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만들 때의 기본 원칙인 '청결'을 365일 철저히 실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경일고등학교 (서울)**

6. (가)와 (나)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1인 가구의 증가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1인 가구의 증가 원인을 미혼 요인보다는 고령화 요인에서 찾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같은 현상을 대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같은 기관에서 발표한 동일한 통계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경일고등학교 (서울)**

7. 인터넷 기사인 (다)로 '매체 읽기' 활동을 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 두 개를 고르면?

- ① 청각적 요소를 잘 활용하였는가?
- ② 내용과 기사 제목(표제)이 적절한가?
- ③ 대상을 감각적으로 잘 보여주었는가?
- ④ 육하원칙에 따라 내용을 전달하였는가?
- ⑤ 최대한 많은 정보를 담아 함축적으로 표현했는가?

**경일고등학교 (서울)**

8. 다음 인쇄광고의 제작 의도와 표현방법을 파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름다운 선율도 아래층 이웃에게는 때론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층을 이해하고 배려하면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① 조명을 활용하여 아래보다 위쪽 그림에 시선을 집중시켜 낮 시간을 표현하고 있다.
- ② 두 개의 그림을 위아래로 배치하여 윗집과 아래층의 주인을 연상시키고 있다.
- ③ 이미지와 문구를 함께 제시하여 광고의 의도를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④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웃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위층의 사람은 음악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래층의 사람은 소음으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대조하고 있다.

**경일고등학교 (서울)**

9. 다음 <보기>의 공익광고 제작자가 계획 단계에서 했을 법한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흰 바탕에 검정색으로 색채 대조를 통해 주제를 강하게 드러내야겠어.
- ② 휠체어를 탄 장애인과 일반인의 모습을 평행으로 배치하여 평등하다는 것을 나타내야지.
- ③ 사무실 의자에 앉은 모습과 휠체어에 앉은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줘야겠어.
- ④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일반인들보다 능력이 떨어질 거라는 편견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 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도 일반인들에게 뒤지지 않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메시지도 함께 보여줘야겠군.



# “책임감 있게 글 쓰기” 정의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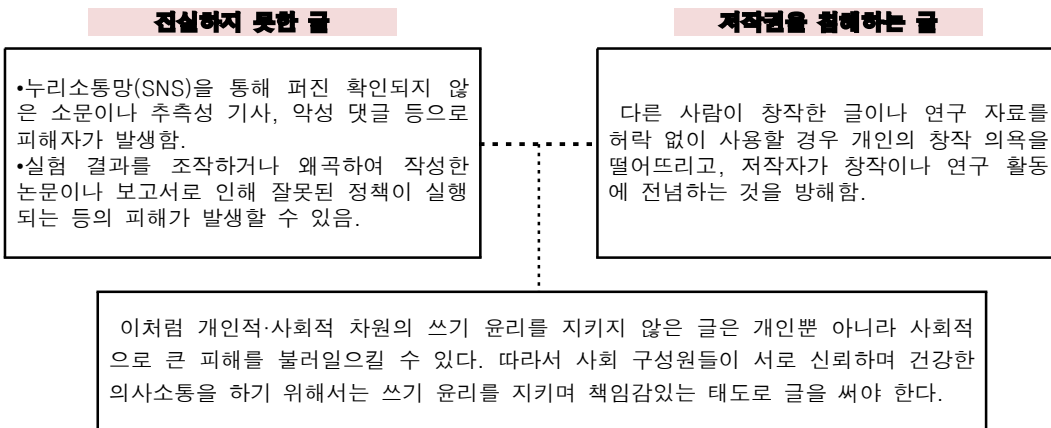
● 핵심요약

<b>갈래</b>	설명문
<b>성격</b>	설명적, 설득적, 예시적
<b>제재</b>	쓰기 윤리
<b>주제</b>	쓰기 윤리를 지키며 책임감 있게 글을 써야 함.
<b>특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며 설명하는 내용의 이해를 도움.</li> <li>잘못된 글쓰기 태도로 발생한 문제점을 제시하며 올바른 글쓰기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함.</li> </ul>

## 1. 쓰기 윤리의 개념

<b>쓰기 윤리의 개념</b>	글을 쓸 때 마땅히 지켜야 하는 도리로, 글을 쓰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동의 규범을 의미함.
<b>쓰기 윤리의 종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거짓으로 꾸며 쓰거나 과장하지 않고 진실하게 글을 써야 하는 도리를 의미함.</li> <li>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 다른 사람이 창작한 글이나 연구 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자의 허락을 받고 출처를 밝혀야 하는 도리를 의미함.</li> </ul>

## 2.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



## 3. 글을 쓸 때 지녀야 할 올바른 태도

쓰기 윤리를 지키며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을 써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신의 생각을 진실하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로 글을 써야 함.</li> <li>•인터넷처럼 강한 파급력을 지닌 매체에 글을 쓸 때에는 글이 독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생각하며 신중한 태도로 글을 써야 함.</li> </ul>
--------------------------------	--

## “책임감 있게 글 쓰기” 온라인 수업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개념을 정리해 보자.

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을 쓸 때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하는 도리.</li> <li>• 쓰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규범.</li> </ul>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
경험이나 생각을 거짓으로 꾸며 쓰거나 과장하지 않고 진실하게 글을 써야 하는 도리	다른 사람이 창작한 글이나 연구 자료를 허락 없이 베껴 쓰지 않으며, 자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저자의 허락을 받고 출처를 밝히는 도리.

## “책임감 있게 글 쓰기” 온라인 수업

1. 52쪽 - ‘윤서’는 수행 평가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가?

→ 인터넷에서 검색한 자료 중 하나를 그대로 복사하여 제출하였다.

2. 53쪽 - 진실하지 못한 글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다른 사람에게 큰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

3. 53쪽 - 사회적 쓰기 윤리를 위반하는 행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개인의 창작 의욕을 떨어뜨리고, 저작자가 창작이나 연구 활동에 전념하는 것을 방해한다.

4. 54쪽 - 글쓴이가 강조하는 올바른 글쓰기 태도는 무엇인가?

→ 쓰기 윤리를 지키며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을 쓰는 것이다. 즉 글을 쓸 때 자신의 생각을 진실하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말한다.

## “책임감 있게 글 쓰기” 수업 질문

1. [2쪽 14~16행] 글쓰기 윤리란 글을 쓸 때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하는 도리로, 글을 쓰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규범을 의미한다.

→ ‘규범’이란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행동 규칙을 말한다. 글을 쓰는 과정에도 규범이 있다는 것은 글을 쓸 때도 지켜야 할 사회적인 규칙이 있다는 의미이다. 글쓰기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행동이 아니라, 준수할 규칙이 있는 사회적 행위임을 지적하고 있다.

2. [53쪽 7~8행]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퍼진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추측성 기사, 이에 달리는 악성 댓글 등으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 사이버 공간에서 사실 확인 없이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비방하는 글을 올리고 누군가의 신상을 공개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가 있다. 그에 따른 피해자가 많이 생기고, 우리 역시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인터넷을 통한 허위 사실 유포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3. [54쪽 9~10행] 그뿐 아니라 공동체의 의사 결정이나 정책 판단 또한 제대로 실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심각한 사회적 손실이다.

→ 어떤 개인이나 집단 혹은 정부가 의사 결정을 내리거나 정책을 만들려고 할 때, 연구 논문 등 다양한 자료를 검토하게 된다. 그런데 그 자료가 합리적이거나 진실하지 못하다면 제대로 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에서 유통되는 글과 자료가 진실성, 정직성, 합리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것임을 말하고 있다.

## **목적 노트**

"기억나는 모든 것을 떠올려 보고 설명하고 써보라"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먼저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란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거짓으로 꾸며 쓰거나 과장하지 않고 진실하게 글을 써야 하는 도리를 말한다. 사람들이 글을 쓸 때,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꾸미거나 과장하여 더 큰 감동을 이끌어내고 싶은 유혹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적이 없는 일을 거짓으로 꾸며 쓰기도 하는데,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서 듣거나 자신이 상상한 이야기를 마치 직접 겪은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위이다.

(나) 진실하지 못한 글은 단순히 글쓴이의 신뢰 문제를 넘어서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다른 사람에게 큰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퍼진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추측성 기사, 이에 달리는 악성 댓글 등으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인터넷상의 잘못된 글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어쩌면 그 피해자가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에서 글을 쓸 때에는 더욱더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지키려는 책임감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연구 성과를 인정받기 위해서 실험 결과를 조작하거나 왜곡하여 논문이나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위반한 행위이다.

(다) 다음으로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란 다른 사람이 창작한 글이나 연구 자료를 허락 없이 베껴 쓰지 않으며, 저자의 허락을 받아 자료를 사용할 경우에도 출처를 밝히는 도리를 말한다. 사회적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는 행위는 개인의 창작 의욕을 떨어뜨리고, 저작자가 창작이나 연구 활동에 전념하는 것을 방해한다.

(라) 글쓰기는 매우 고통스러운 작업이다.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인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명작인 「무기여 잘 있거라」의 결말을 마흔일곱 가지나 써 보고 나서야 결말을 결정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영국의 작가인 버지니아 울프는 첫 소설 「출항」을 완성하는 데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이러한 창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표절이다. 표절은 작가의 고통스러운 작업으로 탄생한 영혼이 깃든 작품을 순식간에 나의 창작물로 둔갑시키는 행위이다. 이 얼마나 달콤한 일인가. 하지만 이렇게 저작권을 침해하는 표절 행위는 마치 훔친 물건을 처음부터 자기 것인 양 사용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글쓰기는 사회 구성원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상호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적·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의사소통은 기대할 수 없다. 나아가 사회에서 유통되는 글과 자료가 진실성, 정직성, 합리성 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뿐 아니라 공동체의 의사 결정이나 정책 판단 또한 제대로 실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심각한 사회적 손실이다.

(마) 윤서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중학교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다 보니 수행 평가 과제인 진로 탐구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었다. 윤서는 고민하다가 정보를 찾기 위해 인터넷 검색창에 ‘진로 탐구 보고서’를 입력해 보았다. 윤서가 자판을 누르자마자 컴퓨터 화면에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윤서는 자신이 원하는 자료를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며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라는 말을 실감하였다. 윤서는 이렇게 자료가 많으니 어느 하나를 베껴서 내도 알아볼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검색한 자료 중 하나를 그대로 복사해서 제출하였다.

**선사고등학교 (서울)**

1. 윗글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악성댓글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차원의 글 쓰기 윤리’가 강조되어야 한다.
- ② 사회적 차원의 글쓰기 윤리가 지켜지지 않으면, 개인의 창작 의욕이 떨어질 수 있다.
- ③ 논문이나 보고서 작성 시 조작이나 왜곡은 ‘개인적 글 쓰기의 윤리’를 지키지 못한 것이다.
- ④ 사회에서 유통되는 글들이 진실성, 합리성, 정직성을 잃으면 공동체의 의사 결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⑤ 인터넷 상의 글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선사고등학교 (서울)**

2. (마)의 사례를 읽고, 가장 큰 문제점을 제대로 판단한 사람은?

- ① 슬아 - 윤서는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과장해서 글을 썼으니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어긴 거야.
- ② 진환 - 윤서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료를 그대로 베껴 썼으니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어긴 거야.
- ③ 우진 - 독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한 의사소통을 기대할 수 없는 글이야.
- ④ 소연 - 다양한 아이디어로 보고서를 창작하지 않았으나 창의성이 떨어지는 과제라고 할 수 있지.
- ⑤ 승민 - 다른 사람에게 듣거나 자신이 상상한 이야기를 실제 경험한 것처럼 썼으니 정직성을 어긴 거지.

**신사고등학교 (서울)**

3. **윗글을 참고하여 다음 신문 기사를 읽었을 때, 추측할 수 없는 것은?**

미국의 항암제 연구개발에 주도적 역할을 해온 60대 과학자가 연구논문 조작 혐의로 소속 대학에서 해임됐다.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OSU)은 30일(현지시간) 의약화학과 칭시 첸 교수가 다수의 논문에 조작된 이미지를 삽입하고 데이터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대학 측과 연방 당국에 제기돼 조사를 벌인 결과, 연구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돼 해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첸 교수는 2001년 OSU에 부임해 '루시어스 A. 워링 암연구·치료센터' 원장을 지냈고, 2010년에는 OSU가 수여하는 '올해의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OSU는 "첸 교수가 2006년부터 2014년 사이 발표한 8편의 논문에서 14건의 연구 부정행위 사례를 찾아내고 각 학회지에 해당 논문 8편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총 75쪽 분량의 조사 보고서를 온라인에 공개했다.

- ① 첸 교수는 글쓰기 윤리의식과 책임감이 부족했다.
- ② 첸 교수가 자신의 논문을 조작한 것은 개인적 차원의 글쓰기 윤리 의식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 ③ 첸 교수의 논문 조작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정책 결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 ④ 첸 교수가 논문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연구에 도움을 준 동료들 명시했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 ⑤ 첸 교수의 논문 조작 사건은 개인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손실로도 이어질 수 있다.

**신사고등학교 (부산)**

4. <보기>는 **윗글의 윤서에 행동에 대해 평가한 대화 내용**이다. 이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윤서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중학교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다 보니 수행 평가 과제인 진로 탐구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었다. 윤서는 고민하다가 정보를 찾기 위해 인터넷 검색창에 '진로 탐구 보고서'를 입력해 보았다. 윤서가 자판을 누르자마자 컴퓨터 화면에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윤서는 자신이 원하는 자료를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며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라는 말을 실감하였다. 윤서는 이렇게 자료가 많으니 어느 하나를 베껴서 내도 알아볼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검색한 자료 중 하나를 그대로 복사해서 제출하였다.

- ① 가영 : 윤서는 글쓰기 윤리 의식이 부족해.
- ② 나영 : 윤서는 노력하지 않고 쉽게 과제를 해결하려고 했군.
- ③ 다영 : 인터넷에서 검색한 자료를 그대로 복사하여 제출한 윤서의 행위는 옳지 않아.
- ④ 라영 :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남의 자료를 베낀 윤서의 행위는 정당화할 수 있어.
- ⑤ 마영 : 윤서의 행동은 글을 쓰는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규범을 지키지 않은 책임감 없는 행동이야.

**신사고등학교 (부산)**

5. <보기>의 **행동 중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어긴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 연구 성과를 인정받기 위해 실험 결과를 조작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A교수
- ㉡ 출처를 밝히지 않고 외국 소설의 일부 문장을 그대로 베껴 소설을 완성한 B작가
- ㉢ 블로그에 방문자 수를 늘리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담긴 글을 쓴 C블로거
- ㉣ 시간이 촉박하여 다른 사람의 논문을 표절하여 학위를 취득한 D박사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먼저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란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거짓으로 꾸며 쓰거나 과장하지 않고 진실하게 글을 써야 하는 도리를 말한다. 사람들이 글을 쓸 때,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꾸미거나 과장하여 더 큰 감동을 이끌어내고 싶은 유혹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적이 없는 일을 거짓으로 꾸며 쓰기도 하는데,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서 듣거나 자신이 상상한 이야기를 마치 직접 겪은 일처럼 표현하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위이다.

(나) 진실하지 못한 글은 단순히 글쓴이의 신뢰 문제를 넘어서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다른 사람에게 큰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퍼진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추측성 기사, 이에 달리는 악성 댓글 등으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인터넷상의 잘못된 글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어쩌면 그 피해자가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에서 글을 쓸 때에는 더욱더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지키려는 책임감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연구 성과를 인정받기 위해서 실험 결과를 조작하거나 왜곡하여 논문이나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위반한 행위이다.

(다) 다음으로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란 다른 사람이 창작한 글이나 연구 자료를 허락 없이 베껴 쓰지 않으며, 저자의 허락을 받아 자료를 사용할 경우에도 출처를 밝히는 도리를 말한다. 사회적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는 행위는 개인의 창작 의욕을 떨어뜨리고, 저작자가 창작이나 연구 활동에 전념하는 것을 방해한다.

(라) 글쓰기는 매우 고통스러운 작업이다.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인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명작인 「무기여 잘 있거라」의 결말을 마흔일곱 가지나 써 보고 나서야 결말을 결정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영국의 작가인 버지니아 울프는 첫 소설 「출항」을 완성하는 데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이러한 창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표절이다. 표절은 작가의 고통스러운 작업으로 탄생한 영혼이 깃든 작품을 순식간에 나의 창작물로 둔갑시키는 행위이다. 이 얼마나 달콤한 일인가. 하지만 이렇게 저작권을 침해하는 표절 행위는 마치 훔친 물건을 처음부터 자기 것인 양 사용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마) 우리는 이제 글쓰기 윤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쓰기 윤리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쓰기 윤리를 지키며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을 쓴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

니다. 자신의 생각을 진실하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로 글을 쓰면 되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처럼 강한 파급력을 지닌 매체에 글을 쓸 때에는 글이 독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생각하며 신중한 태도로 글을 써야 한다. 나와 남을 모두 배려하는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을 쓴다면, 올바른 글쓰기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의사소통 문화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승덕고등학교 (광주)**

6.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사실이 아닌 소문이나 추측성 기사, 이에 달리는 악성 댓글로 사회적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 ②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이나 사실이 아닌 상상 속 이야기를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쓰기 윤리를 위반하는 것이다.
- ③ 자신의 연구 내용이나 실험 결과를 조작하는 것은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위반하는 행위이다.
- ④ 글을 쓸 때는 자신이 쓴 글이 독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는 신중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
- ⑤ 다른 사람의 글이나 자료를 허락 없이 베껴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저작자가 창작이나 연구에 대한 의욕을 잃을 수밖에 없다.

**승덕고등학교 (광주)**

7. 이 글을 참고하여 <보기>의 사례를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유명 작가인 □□□은 외국의 유명 작가가 쓴 소설의 일부 문장을 그대로 베껴 써 소설을 완성한 뒤, 그 소설을 자신의 창작물로 발표하였다.

- ① □□□은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위반하였다.
- ② □□□은 다른 작가의 작품을 훔친 것과 마찬가지로 행동을 하였다.
- ③ □□□이 자신에 대한 독자들의 신뢰를 깨뜨려서 독자들은 실망감을 느꼈을 것이다.
- ④ □□□의 사례는 표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윤리 의식이 부족함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⑤ □□□은 다른 작가들의 창작 의욕을 떨어뜨리고 작가들이 창작에 전념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 “다양한 상황과 대상에 따라” 정답 없는 대화

## 1. 대화의 원리

### (1) 공손성의 원리

<b>정의</b>	대화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예절 바르게 말해야 한다는 원리.	
<b>원칙</b>	<b>요청의 격률</b>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이익이 되는 표현은 최대화함.
	<b>관용의 격률</b>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대화함.
	<b>찬양의 격률</b>	상대를 비난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칭찬하는 표현은 최대화함.
	<b>겸양의 격률</b>	자신을 칭찬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자신을 낮추는 표현은 최대화함.
	<b>통의의 격률</b>	자신의 의견과 상대방의 의견 사이의 차이점은 최소화하고, 자신의 의견과 상대방의 의견 사이의 일치점은 최대화함.

### (2) 순서 교대의 원리

<b>정의</b>	대화 참여자가 서로 적절하게 순서를 교대해 가면서 말을 주고받아야 한다는 것.
<b>고려할 점</b>	대화 참여자는 화자와 청자의 역할을 바꾸어 가면서 차례로 말을 하면서 대화를 진행해야 함. → 대화의 흐름을 잘 살피고 대화 순서에 유의하여 말해야 함.

### (3) 협력의 원리

<b>정의</b>	대화 참여자가 대화의 목적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
<b>고려할 점</b>	듣는 사람이 요구하지 않은 정보를 불필요하게 많이 제공하거나 대화의 목적이나 주제에 맞지 않는 내용을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2. 상황과 대상에 따른 대화

부탁하거나 건의하는 상황,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는 상황,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는 상황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듣기와 말하기 방법이 달라지며 올바른 내용을 말해도 상황이나 대상에 맞지 않으면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음.



## 3. 의사소통의 다양성

개인의 특성 및 세대, 지역, 직업과 같은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듣기와 말하기 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남.



•개인이나 집단에 따른 의사소통 방법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함.  
•차별과 편견이 들어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아야 함.

## “인모를 존중하는 대화” 그래픽 만화

1. (가) 와 (나)에서 대화의 원리에 어긋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보자.  
(위반한 대화의 원리도 쓸 것)

(가) 선생님: 경수야, 네 덕분에 체육 대회를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었어. 고맙다.  
경수: 그럼요. 저는 원래 맡은 일을 완벽하게 해내거든요.  
(나) 어머니: 이번 휴가에는 바다로 여행을 갔으면 하는데. 아들 어떻게 생각하니?  
아들: 좋아요. 저는 동해안에 가 보고 싶어요.  
딸: 저는 다음 주 토요일에 예매해 둔 음악회가 너무 기대돼요.

(가): 공손성의 원리 중 겸양의 격률을 어김

‘경수’의 대답 → 처음 해 보는 일이라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좋게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협력의 원리를 어김

‘딸’의 대답 → 바다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하는 시원한 산으로 놀러 가 보는 건 어떨까요?

2. 민주가 처음에 ‘할머니’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를 적어 보자.



→ ‘민주’는 ‘할머니’와 세대가 달라 ‘할머니’ 세대의 말하기 방식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3. ‘오빠’가 ‘민주’의 인사말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를 적어 보자.



→ ‘민주’가 학교에서 배운 경상도 방언을 사용하였고, ‘오빠’는 그 지역의 방언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4. '민주'가 '요리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를 적어 보자.



→ '요리사'가 자신이 속한 분야의 전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학생인 '민주'는 요리 분야의 전문 지식이 적기 때문이다.

5. 세대, 지역, 직업의 특성이 반영된 말을 사용할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파악해 보자.

- ㄱ. 세대의 특성이 반영된 말: 세대 내에서 동질성과 친밀감을 느끼게 한다.
- ㄴ.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말:
  - 같은 방언의 사용자끼리 소속감과 친근함을 느끼게 한다.
  -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정서를 간직하고 계승하게 한다.
- ㄷ. 직업의 특성이 반영된 말:
  - 직군 내에서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인다.
  - 의미가 정밀해서 전문적인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6. 우리 주변에서 사용하고 있는 말 중에 차별과 편견이 들어 있는 표현을 찾아보고, 이를 올바른 표현으로 고쳐 보자.

- 장님, 병어리 (장애인 차별) → 시각 장애인, 언어 장애인
- 여의사, 여류 작가 (성차별) → 의사, 작가
- 서울로 올라가다. (지역 차별) → 서울로 가다
- 살색 (인종 차별) → 살구색

▶ **홈피 자료실 파일 다운로드** ◀

- 출제 예상 연계 작품 정리
- 답 제거된 문제 반복 연습 파일
- 각종 시험 대비 자료 (기본문제, 자습서 등)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교실>

지호 : 찬우야, 이따가 점심 먹고 배드민턴 기본 동작을 설명해 줄 수 있니? 대신 끝나고 강당 정리는 내가 할게.

찬우 : (하던 공부를 멈추고 지호를 바라보며) 배드민턴 점심시간에는 수업 준비를 할 게 있어서 저녁에 따로 시간을 낼게. 지호야, 강당 정리는 같이 하자.

지호 :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어. 저녁에 만나자. 고마워.

<체육관>

찬우 : 자세가 굉장히 좋은데? 어깨의 힘만 조금 더 빼고 꾸준히 연습하면 더 잘하게 될 거야. 힘내!

지호 : 내가 원래 운동신경이 좀 있어. 조금만 더 연습하면 되겠어?

찬우 : 어, 어…….

지호 : 찬우야, 오늘은 이제 그만 하자. 도와줘서 고마워. 운동이 끝났으니 저녁이라도 먹으러 갈까?

찬우 : 안되는데……. 가족과 함께 식사하기로 했어.

(나)

어? 색연필이 없네. 현표야, 규비한테 빌려면 어떨까? 그래, 내가 말할게. 아, 색연필 있으면 좀 줘봐. 왜? 지금 우리도 써야 하는데.

잠깐만 쓰고 바로 돌려줄 테니까. 색연필 빌려주는 게 아깝나? 뭐라고? 막무가내로 달라고 하면 우리 모듬은 어떻게 하니?

규비아, 혹시 색연필 빌려줄 수 있어? 우리 모듬에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너희가 다 쓸 때까지 기다리게. 너희 모듬도 얼른 쓰고 빌려줄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줘. 나도 빌려주고 싶은데, 우리도 지금 써야해. 그럼 우리도 고맙지 않게 쓰고 빌려줄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줘.

유범아, 어떻게 빌려주어야 할지 모르는데. 너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봐.

**경일고등학교 (서울)**

1. (가)를 보고 학생들이 나는 대화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선 : <교실>에서의 대화를 보면 지호와 찬우는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며 듣고 있어.
- ② 민우 : 맞아. 공감하며 듣기 중에서도 적극적 듣기야.
- ③ 수연 : <체육관>에서 찬우는 지호를 칭찬하면서 찬동의 격률을 사용하고 있어.
- ④ 지민 : 음. 그럼 지호는 겸양의 격률을 어긴 것 같은데.
- ⑤ 형주 : 지호의 저녁 먹자는 제안에 찬우가 안된다고 답하는 건 동의를 격률을 어긴 거야.

**경일고등학교 (서울)**

2. (나)에서 현표와 유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현표는 상대방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말하고 있다.
- ② 유범은 현표와 달리 규비에게 비난조로 말하고 있다.
- ③ 유범은 현표에게 역지사지(易地思之)하기를 충고하고 있다.
- ④ 유범은 규비에게 선택권을 주는 겸양의 격률을 지키고 있다.
- ⑤ 현표와 유범은 규비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말하고 있다.

**경일고등학교 (서울)**

3. <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보기>

대화는 두 사람 이상의 참여자가 자유롭게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상호 교섭 활동이다. 대화의 원리에는 공손성의 원리, ( ㉠ ), ( ㉡ )이/가 있다. ( ㉢ )에는 양의 격률, 질의 격률, ( ㉣ ), ( ㉤ )이/가 있다. 대화의 원리를 지키며 대화하면 다른 사람과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나아가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공손성의 원리란 대화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예절 바르게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손성의 원리는 일반적으로 다섯 가지의 원칙이 있다.

요령의 격률은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이익이 되는 표현은 최대화하는 방법이다.

관용의 격률은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대화하는 방법이다.

찬동의 격률은 상대를 비난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칭찬하는 표현은 최대화하는 방법이다.

겸양의 격률은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신을 칭찬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자신을 낮추는 표현은 최대화하는 방법이다.

동의를 격률은 자신의 의견과 상대방의 의견 사이의 차이점은 최소화하고, 자신의 의견과 상대방의 의견 사이의 일치점은 최대화하는 방법이다.

순서 교대의 원리란 대화 참여자가 서로 적절하게 순서를 교대해 가면서 말을 주고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화 참여자는 화자의 청자의 역할을 바꿔 가면서 차례로 말을 하여 대화를 진행시킨다. 따라서 대화를 할 때에는 대화의 흐름을 잘 살피고 자신의 대화 순서에 유의하여 말하는 것이 좋다.

협력의 원리란 대화 참여자가 대화의 목적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듣는 사람이 요구하지 않은 정보를 불필요하게 많이 제공하거나 대화의 목적이나 주제에 맞지 않는 내용을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선림고등학교 (부산)**

4. 공손성의 원리를 잘못 이해한 것은?

- ① 관용의 격률은 상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 ② 찬동의 격률은 상대 칭찬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 ③ 겸양의 격률은 자기 겸손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 ④ 요령의 격률은 상대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 ⑤ 동의를 격률은 상호 의견 일치를 최대화하는 것이다.

**선림고등학교 (부산)**

5. 대화의 원리에 대해 옳게 이해한 것은?

- ① 상대에게 부탁할 때 관용의 격률을 사용한다.
- ② 상대 의견을 수용할 때 요령의 격률을 사용한다.
- ③ 상대를 격려할 때 겸양의 격률을 사용한다.
- ④ 자신이 칭찬을 들을 때 찬동의 격률을 사용한다.
- ⑤ 서로 의견 차이가 있을 때 동의를 격률을 사용한다.

**선림고등학교 (부산)**

6. 다음 중 순서 교대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은?

- ① 말해야 하는 시점을 잘 선택한다.
- ② 들어야 하는 시점을 잘 선택한다.
- ③ 대화가 끊기면 잠시 침묵을 지킨다.
- ④ 상대가 하는 말이 끝나고 나서 말한다.
- ⑤ 대화자의 역할에 따라 순서가 달라질 수 있다.

**선림고등학교 (부산)**

7. <보기>에서 잘 지켜진 대화의 원리는?

<보기>

찬우 : 자세가 굉장히 좋은데? 어깨의 힘만 조금 더 빼고 꾸준히 연습하면 더 잘하게 될 거야. 힘내, 지호야!

- ① 요령의 격률                      ② 찬동의 격률
- ③ 동의를 격률                      ④ 순서 교대의 원리
- ⑤ 협력의 원리

**선림고등학교 (부산)**

8. <보기>에서 잘 지켜지지 않은 대화의 원리는?

<보기>

친구 : 은채야, 점심 뭐 먹었어?

은채 : 아침에 이모가 오셔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시간이 훌쩍 흘러 버렸어. 그래서 아침에는 간단하게 빵을 먹고, 산책을 하러 잠깐 밖에 나갔었는데 어떤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

- ① 요령의 격률                      ② 찬동의 격률
- ③ 동의를 격률                      ④ 순서 교대의 원리
- ⑤ 협력의 원리

**1-(1) 자화상**

1.② 2.① 3.④ 4.⑤ 5.③ 6.⑤ 7.④ 8.'거울': 자아성찰의 매개체임. 9.① 10.① 11.③ 12.⑤ 13.④ 14.③ 15.④ 16.② 17.③ 18.④ 19.우물 20.② 21.③ 22.⑤ 23.⑤ 24. 2단계: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없어짐(연민), 3단계: 도로 가 들어가다 보니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짐(미움), 4단계: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짐(그리움), 결과: 화해(내적 갈등의 해소) 25.① 26.⑤ 27.④ 28.③ 29.② 31.② 32.② 33.② 34.④ 35.⑤ 36.① 37.④ 38.⑤ 39.④ 40.㉠점층법, ㉡시적허용 41.아름답고 조화로운 자연과는 달리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나이를 미워하다가 자연 속에서 조화롭게 있는 사나이를 통해 그리움으로 변함. 42.④ 43.④ 44.① 45. 가없어집니다. 46.④ 47.미움, 연민(가없음), 미움, 그리움

**1-(2) 책 속에 길이 있다**

1.① 2.③ 3.② 4.② 5.③ 6.④ 7.④ 8.③ 9.② 10.③ 11.⑤ 12.㉠수없이 많은 문학 작품이 담긴 그릇 ㉡: 바람직한 삶의 방향 13.④ 14.④ 15.③ 16.④ 17.② 18.② 19.④ 20.④ 21.㉢무관해 보이는 정보를 엮어서 유관한 그 무엇으로 다시 만들어 내는 능력이 필요하다. ㉣정보를 바탕으로 가치 있는 지식을 창조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을 갖게 한다. 22.그것은 바로 수많은 정보 가운데 의미 있는 것을 골라내는 눈입니다, 그리고 무관해 보이는 정보를 엮어서 유관한 그 무엇으로 다시 만들어 내는 능력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치 있는 지식을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23.② 24.② 25.③ 26.② 27.⑤ 28.① 29.④ 30.① 31.④ 32.(1) 언어로 이루어진 상상의 집 (2) 정신의 키 (3) 비늘 (4) 바람직한 삶의 방향 33.④ 34.① 35.① 36.③ 37.④

**2-(1) 매체를 읽는 눈**

1.⑤ 2.① 3.② 4.④ 5.④ 6.⑤ 7.②④ 8.① 9.⑤ 10.⑤ 11.② 12.③ 13.④ 14.⑤ 15.④ 16.⑤ 17.③ 18.④ 19.④ 20.⑤ 21.③ 22.③ 23.② 24.④ 25.③ 26.③ 27.② 28.① 29.② 30.③ 31.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으로 제목을 써서 올바른 정보의 전달을 방해한다.

**2-(2) 책임감 있게 글 쓰기**

1.① 2.② 3.④ 4.④ 5.③ 6.② 7.① 8.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다른 사람에게 큰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 9.③ 10.⑤ 11.(1)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 (2) 개인의 창작 의욕을 떨어뜨린다. 12.⑤ 13.③ 14.⑤ 15.⑤ 16.⑤ 17.② 18.⑤ 19.④ 20.④ 21.④ 22.④ 23.⑤

**2-(3) 서로를 존중하는 대화**

1.② 2.③ 3.㉠순서 교대의 원리 ㉡: 협력의 원리 ㉢: 관련성의 격률 ㉣: 태도의 격률 4.② 5.⑤ 6.③ 7.② 8.⑤ 9.① 10.⑤ 11.㉤는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지 않아 겸양의 격률을 위반하였다. 겸양의 격률이란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신을 칭찬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자신을 낮추는 표현은 최대화하는 방법이다. ㉥는 압구현의 질문에 관련이 없는 대답을 하여 관련성의 격률을 위반하였다. 관련성의 격률이란 대화의 목적이나 주제와 관련된 것을 말해야한다는 것이다. 12.② 13.① 14.⑤ 15.② 16.자신의 입장만 생각하여 말했다,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서 직설적이고 거칠게 말했다. 17.의문문을 사용하여 '규비'에게 선택권을 주면서 완곡하게 부탁하고 있기 때문에 요령의 격률을 잘 지키고 있다. 18.② 19.① 20.⑤ 21.(1)같이 국어 공부하면 좋지. 그런데 오늘 석식 시간에 동아리 활동에 꼭 가야하거든. 미안해, 주이야. 다음에 저녁 먹고 같이 국어 공부 하자고. (2)주이는 같이 저녁을 먹고 공부 하기를 바라는 아인과 의견 차이가 있지만, 먼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준 후 자신의 의견을 말하여 서로의 의견 차이를 최소화하였다. 22.① 23.② 24.④ 25.⑤ 26.⑤ 27.② 28.② 29.④ 30.② 31.① 32.⑤ 33.② 34.⑤ 35.② 36.① 37.공손성의 원리 중에 겸양의 격률을 고려하여 말하고 있다. 38.② 39.③ 40.⑤ 41.상대방의 말을 가로채서 순서 교대의 원리가 지켜지지 않았다. 42.④

**3-(1) 첫사랑**

1.⑤ 2.③ 3.③ 4.첫사랑을 이름. 5.③ 6.⑤ 7.④ 8.① 9.④ 10.② 11.역설(모순), 아름다운 상처 12.③ 13.③ 14.③ 15.①④ 16.① 17.④ 18.③ 19.② 20.③ 21.④ 22.④ 23.① 24.③ 25.④ 26.② 27.⑤ 28.④ 29.(1)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2) 역설법 30.⑤ 31.자연 현상에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 32.2연,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와 같은 유사한 단어의 반복, '싸그락 싸그락, 난분분 난분분'과 같은 음성 상징어의 사용, '-겠지'라는 어미의 반복을 통해

하는 것. 'A는 B다'라는 형태로 표현됨. (내 마음은 호수요)

3)의인법: 사람이 아닌 동식물이나 무생물, 개념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 (별이 내게 속삭였다.)

4)활유법: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  
(냉장고가 숨을 쉬고 있다)

5)풍유법: 원관념을 드러내지 않고 보조관념으로 뜻을 암시하는 것. (등잔 밑이 어둡다)

6)대유법: 대상의 부분, 특징, 모양 등을 들어, 대상 전체를 나타내는 방법.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빵: 음식, 먹거리)

7)의성법: 사물의 소리를 본 딴 말을 사용하여 실제와 비슷하게 나타내는 방법. (명명, 줄줄줄)

8)의태법: 사물의 모양을 본 딴 말을 사용하여 실제와 비슷하게 나타내는 방법. (엇금엇금, 슬금슬금)

26. ②  
▶특정인이 정보를 독점 할 수 없다고 함.
27. ⑤  
▶㉞는 좋은 책을 읽은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나머지는 편견임.
29. ④  
▶④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에서 확인 가능.

## 2-(1) 매체를 읽는 눈

1. ⑤  
\*수현: 빈 칸 제시는 속도감이 떨어지며 시청자의 궁금증을 유발함 \*윤정: 내레이션하고 친밀감하고는 상관없음 \*인성: 대조적인 상황 제시는 없음

▶응, 헛갈리지 마!◀

**비난 vs 비판 (★)**

ㄱ. 비난: 남의 잘못을 말함. (부정적)

ㄴ. 비판: 남의 잘못을 말함.+문제의 원인 및 대안을 제시함 (긍정적)

2. ①  
ㄴ. 육하원칙은 보고서 평가와 관련된 항목임  
ㄷ. 제작자의 경험 여부는 광고 평가랑 상관없음  
ㄹ. 감각적 이미지는 문학 작품 평가와 관련됨
3. ②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 문제의 심각성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은 아님
- ① '화면 속의 도표를 봐주시시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는 2015년에 처음으로 2인 가구의 비율을 추월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해 알 수 있음. ③ '1인 가구는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통해 알 수 있음. ④ '하봉채 과장은~반면에 아주대학교 사회학

- 과의 노명우 교수는 고령화의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합니다.' 통해 알 수 있음. ⑤ '1인용 생활용기나 소형 가전제품의 수요가 높아지고 소용량 제품이나 조리식품 등의 간편식 등의 판매량이 증가하는 것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통해 알 수 있음.
4. ④  
▶제목에 주방, 충격이라는 말을 통해 독자는 음식점 주방의 문제점이 기사의 내용으로 제시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음
5. ④  
▶보기는 외모 희화화를 비판하기에 적절한 반응임  
① 보기는 시청률 향상과는 상관없음 ② 보기는 시청 연령대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님 ③ 보기는 가족 구성원을 주제로 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님 ⑤ 보기는 외모 희화화로 인한 다른 사람의 희생을 비판한 것이지 외모지상주의에 관한 내용이 아님
6. ⑤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발생한 문제가 제시된 것은 아님
7. ②, ④  
▶기사의 특성을 고려해 적절함
8. ①  
▶위쪽보다 아래쪽에 고통 받는 그림에 시선을 집중시켜야 함
9. ⑤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자는 것이지만 일반인들에게 뒤지지 않는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
10. ⑤  
▶신문 기사는 주로 주관성이 배제되는 것이지만 주관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님  
① 신문 기사의 특성으로 적절함 ② 둘 다 1인 가구의 높은 비중을 말하기에 적절함 ③ '고령층에서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혼자 사는 노인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통해 알 수 있음. ④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진 요인으로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증가',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서 1인 가구를 형성~' 통해 알 수 있음.
11. ②  
㉠ 1990년에서 2005년처럼 일정 기간 동안 변화의 정도를 수치로 제시함 ㉡ '2015 인구주택 총조사'처럼 자료의 출처를 밝혀 통계자료의 신뢰성을 높임 ㉢ 통계청의 분석과는 다르게 노명우 교수의 분석이 다른 것을 통해 알 수 있음
15. ④  
▶방송 매체는 쌍방향성이 아닌, 일방적인 전달임